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박차

전주시, 올해 시민햇빛발전소 9개까지 확대·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 등 보급

전주시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시민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공을 들인다.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2개인 시민햇빛발전소를 연말까지 총 9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생산설비를 설치,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호성동 천마배수지 일원에 각각 90kW 용량의 2·3호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 건립비용은 조합원 출자과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융자사업을 통해 확보된다.

지난 2019년 1월 효자배수지와 지난해 12월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건립된 시민햇빛발전소를 포함해 총 4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385.2k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약 214.5톤에 해당되는 것으로, 20년 된 잣나무 4만7,361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주영화종합촬영

소와 동전주방면 만남의 광장에 5·6호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9호 발전소 건립 위치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480여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 각 가정에 보급되는 태양광 설비는 약 300W 규모로, 일반가구에는 55만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58만원의 설치비용이 지급된다. 설치 대상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단, 300가구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10가구 이상 참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접수기간은 다음 달 6~11일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매월 전기요금 3~6만원이 나오는 가정은 연간 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394.2kWh를 발전해 173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신청자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예정)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원금

액은 ▲태양광 3kW당 78만원 ▲태양열 m²당 8만원(최대 100만원) ▲지열 kW당 12만원(최대 20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 30대 과제 의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50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꽃싱이' 활용 조형물로 자전거도시 전주 알린다

시, 전북대 학생들과 6월까지 공영자전거 활용 제작해 홍보키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공영자전거 '꽃싱이'를 활용해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오는 6월까지 자전거도시 전주를 홍보하는 조형물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형물 제작은 공학계열 중심 대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활용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전북대학교 캡스톤 디자인과정 수강생 18명으로 구성된 3개팀은 매주 6시간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영자전거 '꽃싱이'를 활용한 조형물을 만들게 된다. 제작된 조형물은 자전거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

은 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선 전북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의 전공지식 및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자전거도시 전주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학생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현된 자전거 조형물은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형물 제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추진 위한 사전 간담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12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앞두고 특수학급 담당자 및 성 인권 분야 강사와 함께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찾아가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

육을 제공하는 게 핵심으로, 이날 사전 간담회는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특수학급 담당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며, 성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전 간담회에 참여한 한 특수학급 교사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

이 교육을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을 추진한다면, 자신의 성적 권리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심기봉 센터장은 "장애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보호가 시급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야외 공중화장실 안심 시스템 설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야외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야외 공중화장실에 안심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월드컵경기장 야외 공중화장실 3곳에 안심 비상벨과 화장실 칸막이 하단 안심 스크린을 설치했다.

안심 비상벨은 스위치를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다. 화장실 칸막이 하단 안심 스크린은 칸막이 하단을 막아 옆 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다.

공단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탐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상시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Be Tween Space 추진단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립도서관 내 '우주로 1216'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주로 1216' 진정한 트윈세대 공간으로 도약

전주시-Be Tween Space 추진단, 운영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 최초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아지트로 자리를 잡은 '우주로 1216'이 더 높이 도약한다.

전주시와 Be Tween Space 추진단(이하 BTS 추진단)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립도서관 내 '우주로 1216'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이사장 최취영)과 씨 프로그램(대표 임윤미)으로 구성된 BTS 추진단은 전주시와 지난해 2019년 '우주로 1216' 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이번에 2번째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에 따라 BTS 추진단은 트윈세대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거나 기존 콘텐츠 이용 현황을 분석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트윈세대들이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더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요소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간 시가 축적한 노하우와 업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자체적인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BTS 추진단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간 이용 데이터 및 공간 개선에 따른 피드백도 함께 진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BTS 추진단은 '우주로 1216' 개관 뒤에도 이용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작워크숍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우주로 1216'은 현재 방문자 재방문율이 50%가 될 만큼 청소년들의 발길을 이어져 왔다. 전

국 지자체와 교육기관 177곳, 2,306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간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 수상하고,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지난 협약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다양한 분야, 폭넓은 형태의 청소년 콘텐츠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기획해나가며 운영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우주로 1216'이 새롭게 개선된 콘텐츠로 중무장해 진정한 트윈세대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